

# 미분양 쌓여만 가는데... “대출금 갚아라” 압박만...

건설사들, 은행 돈줄 죄기에 아우성

## “이러다간 주택시장 붕괴... 규제 완화를”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A사는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자금난이 커지는 미당에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중은행 3곳에서 420억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분양 적체 등 사업환경 악화로 분양도 못한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여파로 주택관련 대출 장벽이 높아져면서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이면서 업계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

을 중단하는 한편 중도금 대출도 최소 마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만 대출을 하는 등 집단대출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들어설 때 건설사 보증으로 은행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을 단계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이 집단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은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수익성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늘리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였으나 최근 방침을 급선회했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수익이 나는 사업장에서도 금리 경쟁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은행, 마케팅 강화 조직개편 단행

### 사업부 신설 등 6본부 24부체제로... 고객중심 경영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마케팅 강화를 골자로 한 대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2일 광주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운영을 기준 기능식 조직에서 고객 중심의 영업조직으로 개편하고 부점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령장 20면>

특히 광주은행은 이번 개편에서 강도높은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 사업부로 개편하고 부점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광주은행은 이를 통해 여·수신, 카드 등 기능식 조직에 서 개인·기업 등 고객 중심 마케팅 조

직을 위해 영업점을 ▲가계중심 영업점 ▲기업중심 영업점 ▲복합형 영업점 등으로 재편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인사이동에서는 은행의 역량 결집을 통한 현장중심의 영업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게 광주은행측의 설명이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할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직으로 일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은행은 또 기존 4본부 20부서 체제를 6본부 24부서로 변경했으며, 본부도 고객중심의 사업본부(Profit Center)와 지원본부(Cost Center)로 재편했다.

이번 본부 재편은 사업본부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사업본부장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갖추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현장 경영체

제 구축을 위해 영업점을 ▲가계중심 영업점 ▲기업중심 영업점 ▲복합형 영업점 등으로 재편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인사이동에서는 은행의 역량 결집을 통한 현장중심의 영업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게 광주은행측의 설명이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할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올 공공비축 쌀

40만t 매입키로

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40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2008년산 공공비축용 쌀 매입 물량은 작년의 43만t보다 7% 적은 40만t으로 결정됐다. 35만t은 ‘포대벼’ 상태로, 5만t은 일정 규격의 포대에 담지 않은 ‘산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올해 10~12 월 수확기 산지 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농가들에 40kg(특등급 기준) 당

▲포대벼 5만50원 ▲산물벼 4만9천380원을 주고 사람들인 뒤 산지 쌀값조사가 끝나면 내년 1월 정산할 예정이다. 이같은 우선 지급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최대규모 상생경영’

### 1,350여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삼성전자는 22일 수원사업장에서 협약 체결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이같이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의 대상기업은 1차 협력사만 740여개에 달하고, 7개 계열회사의 1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천350여개에 달하는 업계 최대 규모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협약 체결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이같이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은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협력사 대표모임인 ‘협성회’의 이세웅 회장(이랜텍 대표)은

“삼성전자가 그간 협력사 지원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협력사 역시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초일류 기업에 맞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상호간 관련법 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글로벌 어린이 예절교실’

22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열린 ‘아시아나 글로벌 어린이 예절교실’ 참가 어린이들이 교육훈련동 내 홀 공기 모형안에서 아시아나 외국인강사와 승무원들로부터 테이블매너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농협 ‘영업 잘했네’

### 상반기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를 둔 출향인사를 상대로 전남의 우수농축산물의 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덕수 전남

본부장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재정 자립도와 이농현상, 고령화 등 열악한 지역여건을 극복하고도 단위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된 것은 전남농협의 모든 직원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연말 최종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해 전남농협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 평가에서는 신목포지점(지점장 김태남)이 전국 1위의 영광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로, 청정지역 전남의 특장을 살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사업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본부는 영업점 평가에서

도 관내 36개 영업점 중 15개 사무소가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무소를 배출했다.

또 군자부 평가에서는 무안군지부(지부장 이재광)가, 지점